

예레미야 정독

I. 개론적인 설명

1. 제목

예레미야서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면서 쓴 책이다. 구약에서 분량이 가장 긴 책으로 시편보다 더 길다. 예레미야서는 609-586년까지의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된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멸망 이후에도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 사이에서 사역한 것까지 기록하고 있다.

2. 저자와 연대

1) 저자

예레미야는 요시야(640-609), 여호아하스(609), 여호야김(609-597), 여호야긴(597), 시드기야(597-587) 왕 때에 활동하였다. 그는 요시야(640-609년)의 통치 제13년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고 (627년. 1:2). 시드기야 때까지 활동하였다.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서 개혁한 것은 아마 소명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622년일 것이다. 예레미야의 초기 사역은 요시야의 개혁과 함께 진행되었다. 예레미야서는 그의 초기의 사역에 관하여서는 거의 기록하지 않고 있다. 609년 이후부터 멸망 때까지를 중요하게 기록하는데, 그 부분의 기록에 요시야 시대의 개혁에 대한 평가가 간접적으로 담겨 있다. 율법책의 발견과 함께 성전 제도가 개혁되고 제사도 회복되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성전이 있다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었는데, 예언자는 이것을 중요하게 지적하였다.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으로서 그 당시의 정치나 종교 지도자들의 형편이 어떠하였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짓 목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2) 역사적 배경

그 당시는 아시리아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바벨론이 서서히 세력을 확장하던 때였다. 612년에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에게 함락되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북방에서 오는 군대'로 묘사한다(6:22).

고대 근동의 중심이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자 이집트의 바로 느고(609-594)가 메소포타미아로 군대를 보내어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609년에 유다 왕 요시야가 이집트의 군대와 대치하다가 전사하였다(왕하 23:28-30:2; 대하 35:20-27; 렘 47:2). 요시야의 죽음은 유다가 급격히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볼모로 잡아가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 이집트의 봉신으로 삼았다(22:10-11). 유다는 605년에 이집트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하기 전까지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쳤고, 그 이후에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쳤다. 605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였을 때에 왕족과 귀족의 일부가 포로로 잡혀갔다(단 1:1).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반란을 일으켰으나 597년에 함락되기 직전에 사망하였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예언자의 두루마리를 불에 태웠다(36장). 여호야김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고니야]이 왕위를 물려받았으나 3개월 10일 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바벨론은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맛디야]를 왕으로 삼았다. 그는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고, 친이집트 정책을 펴려다가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았다. 그가 기대하였던 이집트는 원병을 보내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함락되고 자기도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갔다(587년).

3. 주제와 내용

1) 심판을 통한 구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뽑고 회복할 것이라고 하셨고(1:10),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 세우실 뜻을 보여 주셨다. 심판을 통한 구원이라는 메시지가 예레미야서를 관통하는 주제이다.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려는 것이다. 심판을 시행하실 때에도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회

개할 것을 촉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였다.

2) 공동체와 지도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파하면서 유다 민족을 대상으로 그 말씀을 전하였다. 개개인의 덕목과 죄를 중심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교회인 유다를 놓고서 이 말씀을 전하였다. 또한 그 사회 안의 신실한 지도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짓이나 자기 이익 추구와 같은 것이 그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주의하여서 기록하였다. 그는 제사장(2:8), 왕(22장), 예언자(23:9-40) 등을 강렬한 어조로 비판한다. 또한 시드기야의 머뭇거리는 모습을 통해서도 지도자의 연약한 모습이 어떻게 사회에 끼치는지도 알려 준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면서 평범한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은 포기하여야 하였다(15:17; 16:2). 그는 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것이다. 심판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예언자의 삶에서 체현되는 것이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삶은 참된 그 예언자, 곧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사시고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 나갈 것을 기대하게 한다.

3) 새 언약과 새 마음

예레미야는 백성과 그 지도자의 죄를 지적하였는데, 특히 마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 발견한 율법을 따라서 얼마나 진정으로 변화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가 그 당시에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이 있다는 사실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품고 우상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아울러서 섬기고,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에는 우상을 사모하고 있었다. 예레미야는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음을 철저하게 지적하였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가르친 것처럼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촉구하였다(4:4; 6:10; 9:25).

새 마음에 대한 교훈은 새 언약에 대한 약속에서 반복된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때에는 단순히 과거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새 언약이 참된 해답으로 제시되었다(30-33장).

4) 이스라엘의 심판과 열방의 회복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김으로써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에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현실이 예레미야서의 전반에 명백히 나타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 그 효과는 다른 나라에도 미칠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그들의 회복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한다(4:1-2; 33:8-9).

4. 문예적 특징

예레미야서는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기록된 사실들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주어진 본문에 주의하면서 읽어야 한다. 1:2에 요시야 13년에 소명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다음 21장에 가서야 시드기야 때의 일이라는 말이 나온다. 따라서 처음 20장은 역사적으로 재구성하여 이해하기보다는 메시지의 내용에 집중하여서 읽을 필요가 있다.

예레미야서가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는 것은 그다음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25-26장, 35-36장은 여호야김 때의 일이라고 밝힌다. 21-24장, 27-29장, 32장, 34장, 37-39장은 시드기야의 통치와 관련이 있다. 특히 32, 34, 37-39장은 587년경의 예루살렘의 함락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의 파괴가 중요한 주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는 30-33장의 내용도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배경으로 주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옛 언약이 파기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마

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

마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룬 예레미야서에는 예언자의 내면의 고통을 다룬 부분이 자주 나온다. 흔히 '고백록'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은 시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되었다(11:1-23; 12:1-6; 15:10-21; 17:12-18; 18:19-23; 20:7-18). 이 부분에서 예레미야는 자기 마음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고백한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고백은 그의 내면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다.